



月刊 등불

www.tongdosa.or.kr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통도사 성보

글.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묘법연화경」 권제 1~7 「妙法蓮華經」 卷第 1~7

조선 1456년

종이 / 30cm×17.6cm / 보물 제 1196호

묘법연화경 권 1에서 권 7에 해당하는 완질본으로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세조 1년(1456)에 동궁^{東宮}의 빈^嬪인 한씨가 좌의정 한확의 부인 홍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행한 것이다. 표지의 일부가 약간 훼손되었을 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제목은 붉은 바탕 위에 금색 글씨로 썼으며, 각 권의 첫머리에는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變相圖}가 있다. 판에 새긴 후 처음 찍어낸 책은 아니지만, 권 1에서 권 7까지 완전하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통도사 정보박물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번지 TEL. 055-382-1001 FAX. 055-384-0030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불기 2560(201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불기 2560년 5월 14일(음 4.8) 토요일 오전 10시



봉축행사

불기 2560년 5월 14일(음 4.8) 토요일 오전 10시



봉축불공	09:00	대웅전	보궁헌다례	14:00	금강계단
봉축법요식	10:00	설법전	점등식	19:00	금강계단 앞
관불의식	11:00	금강계단 앞	낙화놀이	19:30	일주문 옆 계곡

- 봉축탑 점등식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양산 운동장 앞, 8시 웅상 출장소(시청)
- 제등행렬 5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예불이후) 산문~일주문
- 작은음악회 5월 14일 토요일~15일 일요일 12시~13시30분 육화당 마당
- 접수 화엄전 055)381-1288
- 문의 통도사 055)382-7182



영축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목차



02 통도사 성보

『묘법연화경』 권 제 1~7 『妙法蓮華經』 卷第 1~7

08 병신년 봉축 법어

사자후하시며 오셨네

10 봉축사

자성의 등 밝혀 세상을 맑힙시다

12 선어록 강좌

동산화상이 맞은 방망이?

15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치술성모가 된 망부석, 박제상의 부인 이야기

18 부처님 오신날 특집

부처님이 오신날 등을 밝히는 마음

20 향성

엄마 손은 약손

22 등불화보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제2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개최

승가대학 & 불교청년회 친선 체육대회

부울경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개최

현산 스님 제12주기 추모다례 봉행

29 산문 밖 이야기

5월의 이야기 '나의 스승'

36 새롭게 조명된 인도불교사

인도 불교의 역사_대상의 파악과 열여덟 가지 요소

42 등불의 세계여행

불법의 나라, 자연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스리랑카

47 경전 산책

재가 계율의 보고 寶庫 - 우바세계경 優婆塞戒經

50 영축환경칼럼

사찰림 寺刹林의 보존과 활용

54 진주 남강유등축제 통도사와 만나다

진주 '유등 流燈' 세계에 빛나다

56 종립학교, 그 캠퍼스를 찾아서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55



61



66

59 그림으로 본 부처님

어람관음

60 말사 탐방

부산 기장 금산사를 찾아서

64 산하기관_어린이집 소식

친구들과 함께 딸기밭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66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취나물 잡곡 주먹밥

68 건강칼럼

몸의 열을 식혀주는 금은화^{金銀花}

70 영축소식

통도사 / 박물관 / 자비원

74 신행수기

마음 비운 하루

78 편집후기



이 등 밝히 자비를 이행합니다.
이 법등으로 아상을 벗습니다.
이 밝은 등에 의지하여
거룩한 부처의 길 걷겠습니다.
관등의 의미인 것입니다.

월간 등불 1990년 9월 28일 등록, 2016년 5월 1일 발행(통권414호)

발행인 겸 편집인 향전 영배

편집주간 도문

편집장 선본

편집위원 진각 진응 정진

회계 안은경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

취재·사진 김윤희 김정은

기획·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8 동광빌딩

전화 051) 255-0263 팩스 051) 255-0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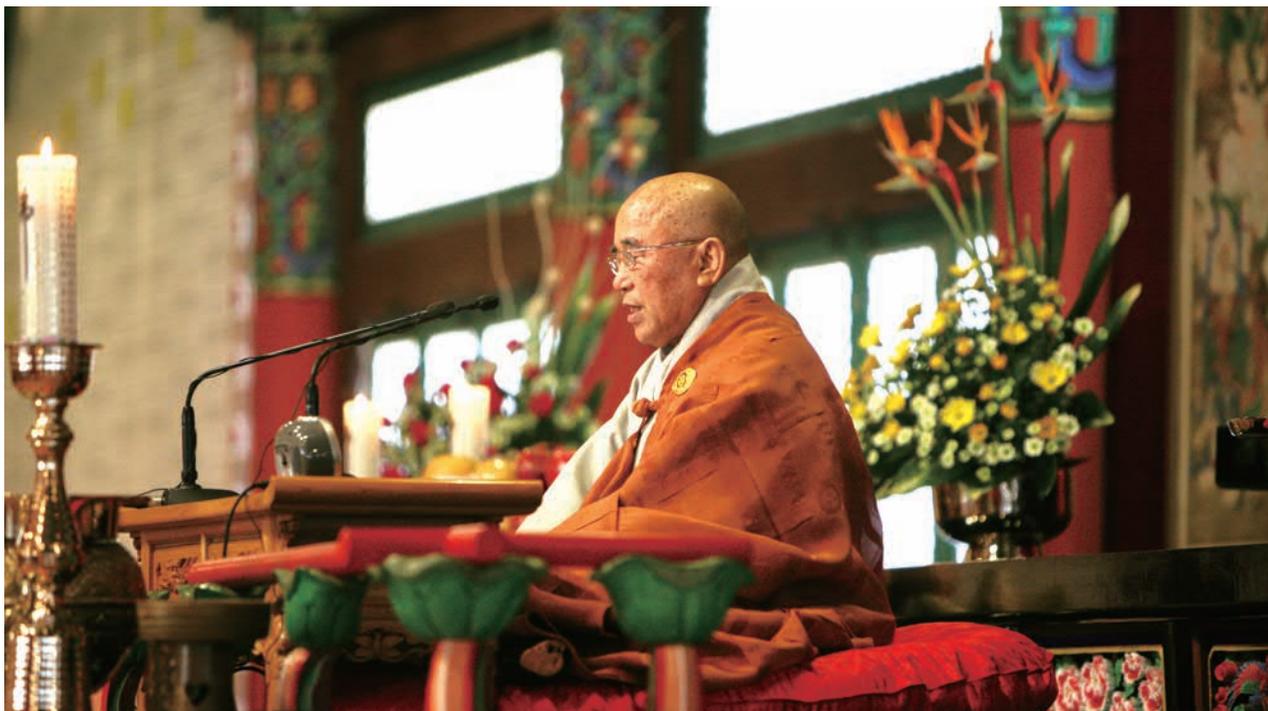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병신년 동축 법어

글.
원명지종대중사 영축총림 방장



사
자
후

하 시 며
오 셧 네

一手指天(일수지천)하고 一手指地(일수지지)하야
天上天下(천상천하)에 唯我獨尊(유아독존)이로다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우뚝하고 존귀하구나.

이 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법계 모든 이들을 향해 하신 첫 설법
입니다.

“온 우주 천지에 오직 내가 우뚝하고 존귀하네.”

이 말은 어떤 생명도 불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두가 고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에 생명의 경중이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진흙 속에 떨어진 연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무명번뇌의 어둠속에 중생이라는 이름을 한 부처가 언젠가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치를 태어나신 그 순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세상에는 무한 희망의 광명이 있게 되었고 불법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청정법수를 내려 먼지를 씻어내고 이 세상에 대도사가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지혜가 광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세상의 온갖 차별과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연의 법을 말씀하셔서 모두가 동등한 문으로 드나들게 할 것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이치를 확연히 비추어보는 지견을 눈뜨게 할 것입니다.

무명의 깊은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불러 깨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든 대중들은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서 한 조각 마음 향을 사루어 올리며 발원합니다.

중생의 모든 고통을 통찰하는 부처의 눈이 되겠습니다.

미묘하고 지혜로운 말로 중생을 일깨우는 부처의 입이 되겠습니다.

빈곤하고 외로운 중생의 벗이 되어 주는 부처의 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원하는 중생들이 오늘 방방곡곡 도량에 모였습니다.

원력이 다하고 이 몸이 다할 때 까지 부처님의 덕이 날로 증장하고 법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굴러가게 하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지혜가 광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의 저희들을 증명하고 섭수해 주소서.

燃起佛前燈 (연기불전등)이여 **滅除心中火** (멸제심중화)라

願此大智慧 (원차대지혜)로 **照破重無明** (조파중무명)하리라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마음속 번뇌의 불길을 소멸하려 함이네.

이 밝은 대지혜의 등불로

질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리라. 🙏





봉축사

글
향전 영배 통도사 주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며 밝히는 연등은 ‘생명의 등’ ‘지혜의 등’ ‘행복의 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건강하고, 마음은 지혜롭고, 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연의 동산 룬비니의 무우수 無憂樹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설산의 숲에서 수행하시다가,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지혜의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녹아원 공원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쿠시나 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서 입멸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잠시나마 명상에 들어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가르침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오늘 밝히는 이 연등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깨달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본래 자성으로 밝아있는 반야의 지혜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생태계는 우리의 생명이요, 맑은 하늘에 밝은 태양은 우리의 지혜요, 모든 생명이 밝은 지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성의 등 밝혀 세상을 맑힙시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날’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
‘참으로 즐거운 날’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룬비니 동산에 태어나시며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唯我獨尊」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오직 하나 밖에 없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명존중의 선언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 표어는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풍요로운 나눔의 실현으로 행복한 세상 정토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연등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삼독 三毒의 무명을 벗어버리는 염불과 기도와 독경 그리고 참선의 수행을 통하여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갈 것을 다함께 서원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선어록 강좌

글.
법산 통도사 선덕, 동국대 이사



동산화상이 맞은

방망이?

無門關 第 15則 洞山三頓

雲門 因洞山參次, 門問曰, 近離甚處.

山云, 查渡.

門曰, 夏在甚處.

山云, 湖南報慈.

門曰, 幾時離彼.

山云, 八月二十五.

門曰, 放汝三頓棒.

山至明日 卻上問訊, 昨日蒙和尚放三頓棒 不知過在甚麼處.

門曰, 飯袋子 江西湖南 便恁麼去.

山於此大悟.

無門曰

雲門當時 便與本分草料 使洞山別有生機一路 家門不致寂寥.

一夜在是非海裡 著倒直待天明再來又與他注破. 洞山直下悟去 未是性燥.

且問諸人 洞山三頓棒 合喫不合喫?

若道合喫 草木叢林 皆合喫棒 若道不合喫 雲門又成誑語.

向者裡明得 方與洞山 出一口氣.

頌 曰

獅子教兒迷子訣 擬前跳躑早翻身.

無端再敘當頭著 前箭猶輕後箭深.





번역

운문화상이 어느 날 동산화상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운문화상: 지금 어디서 오는가?

동산: 사도^臺에서 왔습니다.

운문: 여름 안거는 어디에서 지냈는가?

동산: 호남 보자사^{觀音寺}에 있었습니다.

운문: 어느 때 그 곳에서 떠나왔는가?

동산: 8월 25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운문화상이 '그대에게 방망이 3대^{三槌}를 내린다.' 하였다.

동산이 다음날 운문화상을 다시 찾아뵙고 물었다.

'어제 스님께서 방망이 3대를 때리셨는데 저의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운문화상이 냅다 소리쳤다 '야, 이 밥통아! 강서로 호남으로 뿔하고 돌아다녔느냐?'

이에 동산이 크게 깨달았다.

무문이 논평하였다.

운문스님이 그 때 깨달음의 문제(本分草料)를 주어 동산에게 생기^{生機}의 활로(一路)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선종가문이 꺼지지(寂寥) 않도록 하였다.

동산이 밤새도록 이리생각 저리생각하고 밑바닥까지 확 뒤집어 훑고는 이튿날 다시 찾았을 때 던진 또 한 방망이에 동산이 언하에 깨치게 하였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여러분에게 묻노니, 동산이 삼돈봉^{三頓峰}에 제대로 맞은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인가?

만약 제대로 맞았다면 초목총림도 다 맞을 것이요, 만약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운문이 헛말을 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분명히 밝힌다면 동산과 더불어 함께 호흡할 것이다.

계승으로 노래하다





사자가 새끼를 가르치는 비결이여
 먼저 몸을 확 던져버리면 재빨리 몸을 뒤집듯이.
 무단히 다시 후려침에 당두하니
 앞 화살은 가벼운 것 같으나 뒤 화살은 깊도다.

해설

운문문언(雲門文彦:864~949)은 청원행사(靑原行思) 계통이며 덕산방(德山)의 가풍을 계승한 선승으로 운문종의 대표다. 동산수초(洞山守初:910~990)를 보는 순간 수행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수행 자임을 알아차린 운문 화상이 그 찬스를 적중하게 실행하여 동산에게 한 방망이 내려 치며 대어를 낚아채어 운문종의 가풍을 드날리는 후계자로 삼은 통쾌한 선기(禪機)이다. 일돈(一頓)이 20방(棒)이라 하여 삼돈봉은 60방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번개가 번쩍하는 강력한 3방이다. 운문 화상이 제시한 ‘어디서 오는가?’ ‘하안거는 어디서 지냈는가?’ ‘거기서 언제 떠나왔는가?’의 심문이다. 이에 대하여 동산은 사실 그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동산은 벼락같이 얻어맞은 삼돈방의 근원을 밤새 참구하고는 다음날 운문 화상을 찾아가 ‘나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은 동산에게 어제보다 더 강력한 한방을 때렸다. ‘야, 이 밥통아! 강서로 호남으로 뿔하고 돌아다녔느냐?’ 바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산이 단박에 크게 깨달았다.

무문 선사(無門)는 논평에서 ‘깨달음의 문제(本分草料)를 주어 동산에게 생기(生機)의 활로(一路)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동산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선불리 흥내를 내거나 어떤 일정한 경계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이다.

계송에서 운문 화상이 처음 본 동산에게 삼돈봉을 내려 친 것은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교육함에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서 스스로 뒤집고 살아나게 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자기의 은산철벽 같은 아집의 철옹성을 타파하는데 어지간한 폭탄 가지고 가능할 수 없다.

동산을 내리친 운문 화상의 삼돈봉 참으로 놀라운 선사의 기지이다. 🍵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글.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치술성모가 된
망부석,

박제상의 부인 이야기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왜왕이 알았을 때는 이미 미해가 탈출에 성공한 뒤.
왜왕은 분노해 미해왕자를 보낸 까닭을 묻는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니 왜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니, 어찌 감히
무엇을 그대에게 말하겠는가?”

왜왕은 마지막으로 제상을 회유한다. 왜왕도 제상과
같은 신하를 왜 몰라봤겠는가.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 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 않는 것이다(寧爲雞林之犬豕 不爲倭國之臣子).

차라리 계림의 매질을 당할지언정 왜국의 벼슬을 받
지는 않겠다.”

제상은 왜왕에게 그 유명한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온갖 고문과 처참한 화형 속
에 장렬히 전사한다. 삼국사기에는 이 내용도 자세
하다. 왜왕은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기에 아주 잔
혹하게 그를 죽인다. 칼로 베고 불에 달구고 그러고
도 모자라 목을 베었다고 한다.

눌지왕은 두 형제를 만난 뒤 향악(鄕樂)인 우식곡(憂息曲)을
지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두 동생을 얻은 놀지왕은 제상에게 어떻게 하였을까.

제상의 아내를 국대부인(國大夫夫人)으로 책봉하고 그의 둘째 딸을 미해 공의 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쩌면 제상에게는 놀지왕이 김씨였으므로 왕의 성(姓)을 하사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박제상이 김제상이 되었다고 보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이 박혁거세의 후손이요 파사이사금의 5세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상 또한 왕족이었다.

또 미해를 왜에 보낸 것이 삼촌인 실성왕이었다고도 한다. 실성왕 또한 왕자 시절 고구려 볼모로 갔는데 그것을 허락한 그의 형 내물왕에 대한 복수였다고. 내물왕이 죽고 아들 놀지가 너무 어려 삼촌인 실성왕이 즉위했다는 것이다. 고구려 인질로 보내진 일에 원한을 품고 있던 실성왕은 내물마립간의 태자였던 놀지도 고구려군을 마중 나가게 한 다음 고구려인을 시켜 은밀히 죽이려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인은 범상치 않은 놀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417년(실성 16) 놀지가 오히려 실성마립간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 얽히고설킨 가족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랑세기에는 아내 치술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그 실성왕의 딸이 치술공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이 얽히고설킨 왕가의 미스터리가 설명이 되는 것 같다. 게다가 왕이 된 놀지의 왕비 아로부인도 실성왕의 딸이다.

잠시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할 동안 죽은 제상의 아내 치술의 행적을 살펴보자. 그렇게 헤어질 때도 역사에 길이 남을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던 공주가 아니었던가.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술부인은 남편을 그리는 마음이 더해 갔다. 그녀는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雞連嶺) 위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치술신모(雞連神母)가 되었다. 지금도 사당이 남아 있다. 이것이 삼국유사의 결말이다.

그러나 화랑세기는 반전의 기록을 쏟아놓는다.

놀지가 실성왕의 첫째 딸을 왕비로 삼고 둘째 딸 치술은 제상이 죽자 위로차 성은을 베풀어 그 사이에서 황아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딸이 청아인데 미해와 결혼했다고 전한다.

또 다른 구전으로 울주 두동 치술령에 제상의 아내에 대한 설화가 전해온다. 제상의 아내가 죽어서 치술산 신모로 추앙받아 사당을 세웠는데 바로 신모사라는 것이다. 신모사는 원래 치술령 정상에 있었는데 제상과 그의 부인을 함께 제사 지내기 위해 치산원이 세워졌는데, 지금의 치산서원이 그것이다. 치산서원에는 박제상을 모신 총렬묘, 부인을 모신 신모사, 두 딸을 기리는 쌍정려 등이 있다.

한편 다른 구전에서 제상은 대마도 국경을 지키려가면서 아내에게 흑시 대마도를 보다가 그 산에 검은 구름이 끼면 자기가 죽은 줄 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몇 해가 지나도록 매일 부인과 세 딸이 치술령에 올라가 대마도를 보는데 어느 날 검은 구름이 짙어



산이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떨어져 죽어 그 몸은 망부석이 되고 혼은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날아갔다. 아내는 죽어서 '치'라는 새가 되고 같이 기다리던 세 딸은 '술'이라는 새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새가 날아든 암자가 있었는데 그 절의 이름이 바로 은을암(隱乙庵)이다. 이 암자는 절벽에 떨어져 죽을 때 새(乙)가 되어 숨어서(隱)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어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찰식 표기로 '숨을 암'이 더 유력해 보인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변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투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애달게 죽었는데 성모나 신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망부석이라도 남아 기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도 결국 당나라에서 볼모로 있다가 죽는데 그 죽음의 장소가 각기 다르다. 삼국사기에서는 당나라에서 죽은 것으로, 삼국유사에는 귀국하다 바다에서 죽어 그를 위한 관음도량 인용사가 미타도량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후일담으로 남는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화랑세기, 구비설화 등 텍스트를 겹쳐 촘촘히 정독하면 중첩되기도 하고 빠진 부분이 보충도 되지만 상반된 갈래나 결말로 읽힐 때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스토리텔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묘미일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제상의 부인이 치술성모가 되었든 놀지왕의 새 왕비가 되었든지 바위나 새가 되었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제상과 치술이 되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한 그들의 바람이 이처럼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낳고 지금도 그녀를 우리 곁에 살아 숨쉬게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학박사(석보상절 주제)
철학박사(삼국유사 주제)



부처님이 오신날

등을 밝히는 마음

싱그러운 오월이다. 산도 옷을 갈아입고 풀꽃들도 햇볕에 반짝이며 운기를 더하고 저마다의 자태를 자랑한다. 산색이 푸르고 계곡의 물소리도 한결 기운을 돋운다.

절을 찾아가면 널찍한 방에서 불자들이 둘러앉아 등 만들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마음에 품은 기원들을 손끝에 모아 정성스레 등을 만든다. 저마다 품은 기원은 다르지만 한 등, 한 등 만들어가는 모습은 하나다.

예나 지금이나 이맘때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의 염원이 푸른 숲처럼, 흐르는 계곡처럼 넓게 그리고 널리 번져 나간다.

벌써 반세기 전이 되었다.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그때 그 부처님 오신날이 새록새록 기억들에서 살아나온다. 60년대 초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원으로 열심히 절에 다닐 때다. 조계사 뒤편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이 있었다. 불교회관이다. 그곳에서 젊은 불자인 대불련 회원들은 초과일을 맞아 등을 만들었다.

재료를 한 켠에 모아 놓고 작업을 했다. 굵은 철사, 가는 철사, 흰 종이, 작은 색종이 등 다양하게 갖추었다.

굵은 철사는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6각, 8각으로 휘게 만들고 작은 철사는 휘어진 굵은 철사를 엮는다. 6각등, 8각등의 모양이 갖추어지면 종이를 바른다. 그 바른 종이 위에 작은 색종이를 온갖 모양으로 오려 붙인다.

등이 완성되면 작은 철사를 등 윗부분에 걸쳐 손에 들거나 천장에 걸기 좋게 해 놓는다.

수십 개의 등이 만들어졌다. 이 등들은 조계사 법당이나 경내에 달지 않았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양손에 3~4개의 등을 들고 명동거리를 나갔다. 팔려고 나간 게 아니었다. 명동 한 복판 번화가 양쪽에 자리한 가게들에 그저 공짜로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다. 명동거리에는 양품점 식당 술집 레스토랑 카페 양장점 등 다양한 점포가 있었다. 그런 곳에 등을 달게 하자는 것이었다. 한 등, 한 등 나눠주면서 명동성당 쪽으로 걸어갈 때였다.





한 청년이 쫓아 와서 “우리 가게에도 그 등 주시오.” 했다. 어디서 왔느냐니까 ○○카바레에서 왔다고 했다. 그 청년에게는 등을 주지 않았다. 이유인즉, 술 마시고 춤추고 흥청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을 기리는 신성한 등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 생각 같았다면 걸림 없이 주었을 것을 당시엔 그토록 원칙만을 고수했던 것이다.

성철 스님 생전, 당신이 계시는 해인사 백련암 도량에는 초파일에 등을 달지 않았다.

시자들은 큰절에 가서 등 다는 운력을 하고 한 두 등을 얻어갔고 백련암에 와서 법당 앞과 해우소 앞에 그 등을 달았다.

해인사에 딸린 다른 암자들은 모두 초파일 등을 달았다. 그런데도 유독 백련암만은 등을 달지 않았다. 성철 큰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한 거다. 스님께서 왜 그리 하리셨는지 당신의 의중을 헤아리긴 어렵다.

지금은 성철 스님 상좌들이 주지를 맡고 있는 절에서도 등을 달고 있다.

그런걸 보면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등을 다는 것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으신 듯하다.

단지 당신이 백련암에 계시실 때 당신이 계시는 암자에는 달지 않으신 거다. 백련암에 등을 달 생각을 가진 불자들은 본당인 큰 절에 가서 등을 달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는 지금도 스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을 헤아려보지만 정작 당신의 의중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인사 경내에 온갖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부처님 오신날, 해거름에 각 등마다 점등하여 휘황찬란한 연등의 물결은 주변의 산색과 어울려 장관을 이루었다. 그런 때에 해인사 파출소 소장이 절에 왔다.

경내의 연등을 둘러보던 그가 허겁지겁 원주 스님을 찾았다. 달아놓은 등을 찬찬히 살펴보니, ‘합천경찰서장 ○○○’이라고 등표를 붙인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상관인 서장의 연등이 보이지 않으니 아랫사람으로서 당황했을 법하다. 상관을 챙기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다 할까, 정말 형언하기 힘든 기분이었다.

연등은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닐 터인데 그렇듯 우리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드러내는 일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형국이다.

이 좋은 계절, 등을 밝히는 연유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일이다. 🕯️



이진두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현. 불교신문 논설위원



항성

글. 그림
수안스님 문수원





엄마 손은 약손

약사經 사경기도 할 때

우리야기

미운 네살짜리야기

배가 아파 당굴면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복배

노스님 주신 침향^{지향} 향기가

온 산 가득 하다

약사 여래불

우리야기 복배

엄마 손은 약손

봄꽃 더불어 엄마 보고플 때

먼산 뼈쪽이 소리 들리다

2016. 4. 24

문은



“철저한 지계 정신으로 보살의 길을 걷겠습니다”

4월 11일~13일(3일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불기 2560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설법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보살계 수계산림은 11일 오전 9시 30분 입재불공으로 시작되어 사흘 동안 십중 대계^{十中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의 계목을 설하셨으며 세 번의 설계^{設戒}와 기도, 불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계대화상 해남 스님, 갈마아사리 범산 스님, 교수아사리 덕문 스님을 3사로 모셨으며, 성림 스님, 영일 스님, 도일 스님, 범운 스님, 중선 스님, 우진 스님, 현진 스님이 7증사로 법상에 오르셨습니다.

13일 회향의 날 오전 7시,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에게 수계첩이 배부되었으며, 오전 9시부터 설법전에서 장학금 수여식과 수계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설법전을 가득 메운 3천 300여명의 불자들은 3사 7중 스님들로부터 계를 수지하고 연비의식을 치르며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여러분은 뛰어난 보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계를 받은 인연으로 선근의 종자를 잊지 않는 불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고 수계불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어 주지 스님께서 수계법회를 위해 제주도에 서 통도사를 찾은 13명의 불자님들을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양 문수행 불자님이 소개되자 감탄의 박수 소리가 설법전을 울렸습니다. 보살의 삶을 서원하는 신심 하나로, 94세의 노구를 이끌고 15년째 하늘길을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이날 수계식에 앞서 통도사 재적 스님 가운데 용맹심으로 수행 정진하는 스님 총 57명에게 5,0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여식도 진행되었습니다. 57명의 스님을 대표하여 영축울학승가대학원 진오 스님과 통도사 승가대학 금행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부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보살계 수계 30회를 맞이한 남경자 불자님을 비롯하여 다년간 꾸준히 수계법회에 동참해 온 77명의 불자님에게도 기념패와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계(受戒)'가 완성되는 순간은 계첩을 받아 들고 연비를 받는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철저한 지계를 다짐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환희로운 공덕은 아닐런지요.





불교미술사 학술연구로 영축총림 위상 재고

제2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개최

4월 9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지하1층 문화센터에서 불교미술사학회의 춘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앙대학교 서남용·영남대학교 배영진 님의 진행으로 조태건(불교문화재연구소), 박기현(동국대학교), 심인영(홍익대학교), 오세덕(경주대학교), 최선일(문화재청) 등 5명의 발제자와 정명희(국립중앙박물관), 김은아(충남대학교), 강건우(국립중앙박물관), 조종현(서울대학교), 이희정(문화재청) 등 5명의 토론자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정희두 고려미술관장의 초청강연 <고려미술관' 이렇게 만들어졌다-항아리에 담긴 소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지준 스님과 총무국장 도문 스님도 동참해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불교미술사학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되어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4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간 2차례(춘계,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행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불교미술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이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지에 선정되어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향후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교미술사학 분야에 있어 구심점이 되는 사찰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기대가 모이는 대목입니다.



승·속 떠나 어우러진 봄날의 추억

승가대학 & 불교청년회 친선 체육대회

4월 17일 일요일. 오전까지 많은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맑게 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적당히 물기를 머금은 잔디는 한결 더워진 햇살을 식혀주었습니다. 필드를 누비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날, 양산 하북체육공원 1경기장에서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불교청년회 법우들은 잠시 공부인의 위의를 내려두고 한 판 승부를 펼쳤습니다. 봄날을 맞아 '어울림 한마당, 친선 체육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어울림 한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스님들. 연이어 골이 터지자 경기는 열기를 더해갑니다. 청년회도 만회골로 학인 스님들이 굳게 지키던 골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승부를 내는 일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득점을 해도, 실점을 해도 호탕한 웃음만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속을 떠나 한데 어우러짐이 선사하는 즐거움 덕분입니다.

청년회 법우들이 마련한 간식과 점심, '짜장 공양' 후, 오후에는 발야구와 족구 게임도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승가대학 & 불교청년회 친선 체육대회'는 매년 봄 청년회의 주관으로 펼쳐집니다. 다음 해, 더 많은 청년불자들과 학인 스님들이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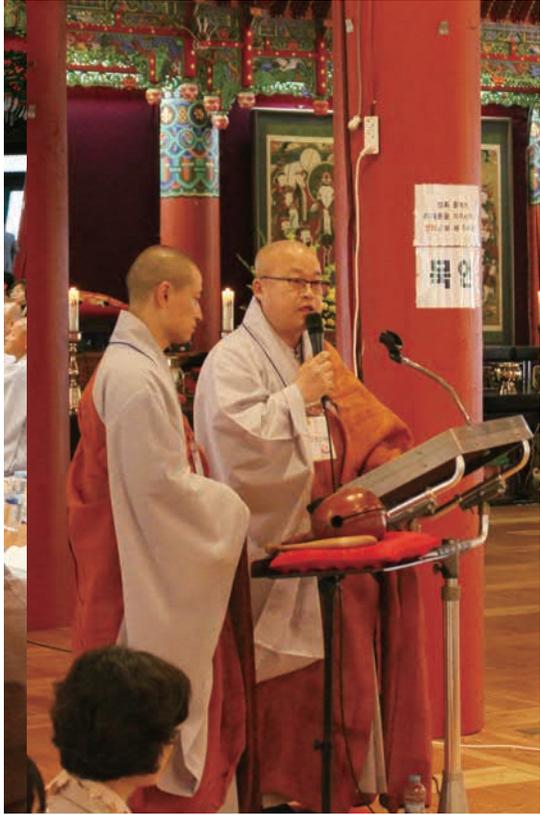
“대표자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 종단 축제 돼야”

4월 23일, 「부·울·경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개최

출·재가 함께 한 전 종도 의견 수렴의 교두보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를 주제로 하는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중공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부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통도사를 비롯하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등 4개 교구본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중공사에는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주요 소임 스님들, 신도, 부산·울산·경남지역 불교계 인사 등 13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입재식을 병행하였으며 토론은 대중공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일감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스님은 여는 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한국 불교의 수장 선출 방식에 있어 종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합리적인 선출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인 간선제, 연화미소법, 종단쇄신위원회안, 직선제 등 4가지안을 둘러싸고 가장 적합한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이날 토론에서는 70%가 넘는 숫자가 ‘직선제’를 지지했습니다.

마중물 발언으로 가장 먼저 의견을 개진한 주지 영배 스님도 “선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수의 종도가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금권, 담합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대안”이라며 온 사부대중이 동참할 수 있는 직선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도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등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종단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대표 선출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토론회에서 재가불자들이 발언권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고무적인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 종도들의 목소리를 듣는 지역 사부대중공사는 4월 9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대전·충청, 호남,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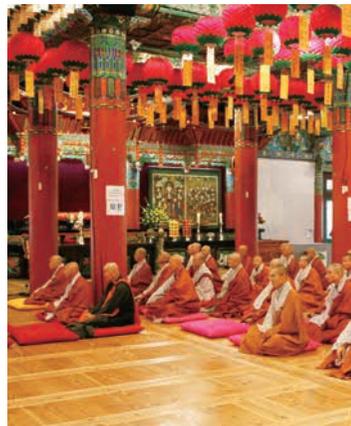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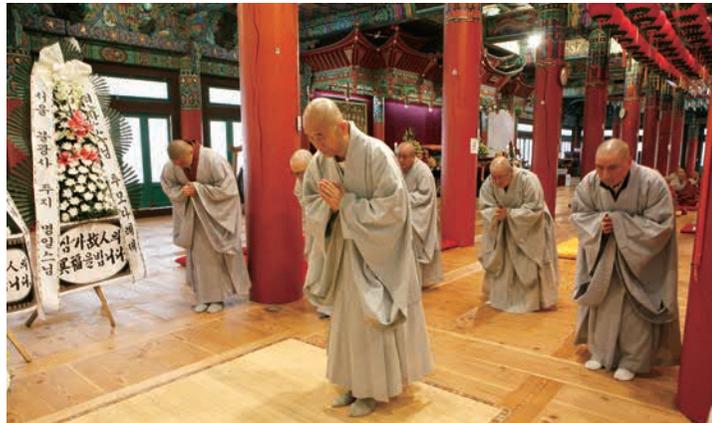
빈민 구제와 포교 위해 평생 바친 어른 현산 스님 제12주기 추모다례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4월 23일 제12주기 현산 스님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설법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지종 스님, 주지 향전 영배 스님, 서울 포교당 보현사의 주지 명신 스님을 비롯한 현산 스님의 상좌 스님들과 보현사 신도 4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추모다례제는 노전 스님의 사시예불에 이어 방장 스님과 주지 영배 스님 그리고 소임 스님들의 헌향과 삼배가 이어졌고 보현사 신도들의 헌향과 삼배가 뒤를 따르며 현산 스님의 생전 덕화를 기렸습니다.

추모다례를 마친 명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산 스님의 추모다례에 문도, 문중스님들과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주시에 감사하고 본사인 통도사에서 추모다례제를 지내게 되어 감사 할 따름입니다. 은사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시봉으로서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현산 스님은 1953년 1월 15일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통도사 교무국장, 감찰부장을 역임하셨고, 1972년 통도사에서 대덕법계 품수를 받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6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셨으며 빈민구제와 도심포교를 위해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통도사 포교당 보현사를 창건하시는 등 포교에 힘쓰셨습니다. 이후, 통도사에서 전계회상으로 보살계 및 각종 수계산림에 동참하셨으며 2003년 4월 19일 원적에 드셨습니다.



산문 밖 이야기



5월의 이야기

나의 스승

그랬다.

스승은 불리어지는 이름이라고.

철이 들기 전, 알지 못했던 것들이
철이 들고 나니 비로소 보인다.
그곳에는 일상의 진부한 것들에서
얻어지는 가장 순박한 진리도
있었고,
가장 근사할 것만 같았던 고고한
논리마저 사정없이 깨지는 사례도
있었다.

불교가 가르쳐 준 최상의 가르침이
그러하듯,
우리의 스승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가깝게 또는 낮은 곳에서
보고자 하는 이를 위해 '때'를
가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수도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는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학교가 다가 아니라고,
집이 전부가 아니라고,
혹은 수도원이 전부라고
그렇게 단언할 일도 아니었다.

순간의 '나'를 일깨워주는 이,
그를 단박에 알아 볼 혜안이면
좋을 일이며 그런 스승 있음을
지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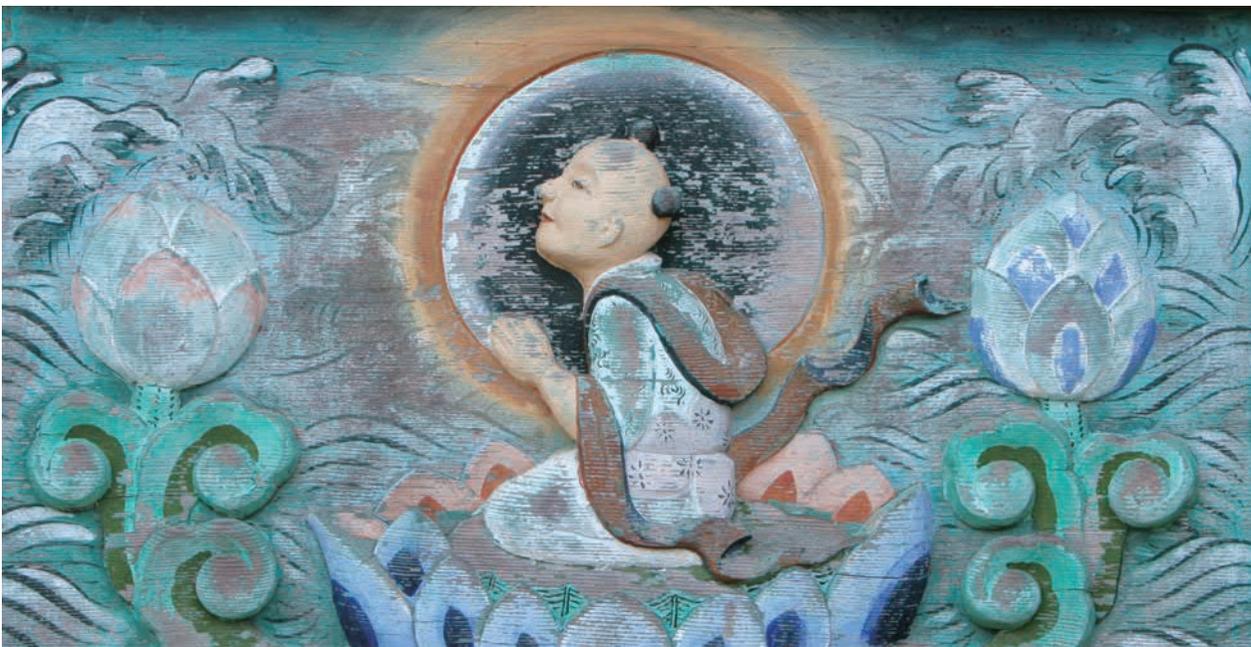
인류의 스승이 오신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하여...



글.
공불학 변호사

매순간 변화하고 고정됨 없는 모습이 스승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에 반영하여 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망설여진다. 종교는 정의하기 어렵다. 동·서양 고금을 거쳐 이 보다 더 난해한 함의를 지닌 단어가 있을까. 더 나아가 누군가 “스승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도 망설여지기는 마찬가지다. 스승은 가르치는 존재인가. 제자는 배우는 존재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가르침이란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신앙과 스승, 양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 일지도 모르겠다. 둘 다 믿음을 빼고는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상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믿는 것인가. 인간의 뇌는 대상을 재해석(재창조)한다.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를 일컬어 뇌의 사후적 해석 기능이라 명명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의 대상은 믿는 주체가 그것을 재창조하여 믿는 꼴이 된다. 그건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믿는다면 그건 또 어떤 꼴인가. 다니엘 데닛은 <주문을 깨다>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다. 만약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고 있다면 이 얼마나 당혹스런 결과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믿음을 믿는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절대자나 사제지간의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신의 프레임을 통하여 재창조된 대상이나, 자신의 관념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상을 믿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붓다가 강조한 여실지견의 어려운 장면이라 하겠다.

믿음은 그렇더라도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과연 가르침이란 가능한 것인가.

인연 따라 일어난 제법의 무상함 속에 스승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꼬집어 제자에게 전달할 그 무엇이 있으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스승도 제자도 매순간 변화한다. 양자 모두 그 변화에 적응할 따름이다. 이러한 곳에 누가 스승이요,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스승이란 어쩌면 ‘난 너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제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스승의 유일한 역할 일지도 모른다.

믿음과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종교와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겐 스승이라고 고정하여 칭할 그 무엇이 없다. 매순간 변화하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나의 스승이라면 스승이다.

두두물물이라 하였던가. 끊임없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적응할 뿐이다. 🙏



글.
강성할 부산일보 편집국 부장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내 인생에 존경하는 스승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고김정부경남대 교수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은사는 1982년 당시 대학 신입생으로 경남마산경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입학했을 때 담당교수로 재직했다.

은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1973년부터 이 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시작, 1980년 법행정학부 교수, 1996년부터는 학사 부총장을 맡아왔다.

또 1999년 12월부터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통일부장관 입각에 따라 총장직무대행까지 맡기도 했다.

은사는 대학 4학년 동안 나를 아들 이상으로 챙겨 주셨다. 6대 독자였던 은사는 10여 차례 맞선을 보며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달랐다.

그래서인지 나의 캠퍼스 생활에 웬지 모를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전공 관련 논문과 서적도 건네주시기도 했다.

초등생도, 중학생도, 고교생도 아닌 대학생인 나에게 때론 분에 넘치는 배려로 늘 의아해 생각하던 중 은사와 우리 어머니와의 교류를 뒤늦게 알게 됐다.

신입생 때 우연히 은사의 근황을 이야기 듣던 어머니가 어떻게 은사의 연락처를 알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학교로, 은사 댁으로까지 전화해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린 것이었다.

6살에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후 그해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애지중지한 어머니의 사랑에 공감한 은사와 사모님이 아들을 대신해 과분한 정을 주셨다.

당시 '이제 다 큰 대학생이라며..., 마마보이도 아니고...'라는 푸념으로 때론 은사 모시기에 눈치 보기도 했지만, 남들보다 2년 빨리 18살에 대학을 입학한 어린 나이의 나를 늘 앞날의 걱정과 학교생활을 이끌어주었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길 인도하며 멘토 역할을 해

주셨다.

대학 졸업 후 경찰 간부가 되고 싶어 시험을 준비하던 중 “강 군은 경찰보다는 교수가 더 잘 어울린다, 대학원 박사까지 생각하라”며 서울 2곳과 모교에 석사과정을 추천해 주시며 아무래도 모교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권유로 “22살에 석사과정을 들어가면 20대 안에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결국 모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진학하기로 했다.

대학 졸업식을 앞두고 앨범과 졸업생 가운을 찾으러 학생처에 갔더니 취업보도과에서 찾는다는 메모를 전했다. 사연인즉, 은사님이 대학원 공부를 하며 사회생활도 경험하고 학교에 남길 생각으로 학생처 교직원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었다.

그런 배려에 동년배들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2학년이 대부분이었는데 22살 청춘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보다 넥타이와 정장을 하는 ‘애송이 직장인’이 됐다.

은사 주변에서 은사를 닮아가기 위해 더 노력했다. 대학, 대학원 내내 은사 방을 들락거리며 심부름도 자청했다.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당시 박사과정 정원에 밀려 박사과정 진학에 차질이 생겼다. 3년 정도 지나야 내 차례가 올 수 있었다. 당시 모교 출신 1명에 타교 출신 3명으로 한정돼 모교 출신 선배들이 대기 상태였다.

당시 어린 마음에 학교 교직원 생활보다 다른 직장을 찾다 신문사 기자 모집에 응시했다.

은사는 또 반대하셨다. “강군은 기자보다는 교수가 어울린다”며 많이 혼내셨다.

당시의 기자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린 생각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기에 은사의 당부에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신문사로 취업했다.

그 후 기자로서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한동안 소원해지는 무례를 범했다.

그래도 은사는 다정다감한 분이였다. 1999년 당시 서울 파견 경제부 기자 시절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며 모교에 찾아가 제자로 안부를 자주 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때 총장직무대행으로 바쁜 일정 속에도 긴 시간을 할애하며 “너는 선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장점을 재산으로 끝까지 따뜻한 기사를 많이 쓰는 좋은 기자가 되라”며 용기를 주었다.

또 공부는 ‘할 때 해야 한다’며 박사과정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겨우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은사는 벌써 고인이 되셨고 그 마지막 만남은 더 소중한진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도 못한 제자로서 은사의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진다. 🌻



강성할
부산일보 기자
현. 부산일보 편집국 부장

글.
박미주 불교부산방송 PD

현진스님과 자동차



#1. 글 스승 현진스님

학창시절 책을 참 좋아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시험 기간 중에도 태백산맥과 토지의 새 책이 나오면 교과서는 제쳐두고 몇 번이고 새 책을 되풀이하며 읽고, 새벽까지 책을 보느라 잠자는 것도 잊고 있으면 그만 자라는 잔소리를 하다하다 지친 아버지가 두꺼비집을 내려버릴 정도였다. 무언가를 읽지 않으면 불안해서 활자중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만큼 책을 좋아하고 참 많이도 읽었다.

그렇게 책을 좋아했던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됐고, 많은 작가들의 글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나만의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답을 찾기도 했다.

어렵지 않은 일상의 언어들로 짧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글을 쓰는 종주 마야사 주지 현진스님은 그 수많은 작가들 가운데 내게는 단연 최고의 글 스승이시다. 스님의 글을 처음 접한 건, <삭발하는 날>이

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출가 수행자로서의 일상을 담백하게 쓴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가슴을 탁 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수행자의 삶을 꿈꾸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도 생각나고, 마음을 울리는 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다. 그 뒤로 스님이 쓰신 책은 모두 소장하며, 모서리가 닳아서 너털너털해지고 하얀 여백이 남지 않을 만큼 밑줄을 긋고 메모를 덧붙여 가며 읽고 또 읽었다. 불교방송 작가라는 특혜(?) 덕분에 스님과 직접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라디오 구성작가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책 한 권을 내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이뤄지는 날까지 최고의 글 스승이신 현진스님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언젠가는 나도 스님처럼 맛깔스러운 글을 쓰리란 희망을 품어 본다. 스님이 내게 그러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글 스승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2. 하심을 가르쳐 준 스승 자동차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던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은 내게 또 다른 의미로 기적을 만난 한 해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삶이란 기적을 만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2002년 1월 필기시험부터 실기, 도로주행까지 한 번에 합격하고 운전면허를 받았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에 운전이 체질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신감은 급기야 면허증을 받은지 한 달 만에 고속도로 주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날이었고, 도로주행을 하면서 탔던 연습용 차량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미처 인지하지 못한 탓에,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지는 대형 사고를 낸 것이다. 당시 내가 운전하던 차 뒤로는 관광버스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만약 그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복된 차는 엔진이 불이나면서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 사고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운전이 현대인들의 필수이기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고 덕분에 배운 것도 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것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일일수록 점검하고, 모든 일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또 낮추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어서 지금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발목이 아프다. 발목의 통증이 느껴질 때면, 나도 모르는 자만심으로 마음자리가 어지럽혀지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자만심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자동차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스승이다.

이 두 스승 외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어찌면 인생의 스승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내 삶의 수많은 스승들과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



박미주

2000년 07월 BBS부산불교방송 구성작가로 입사
2016년 04월부터 PD로 근무
현재 BBS부산불교방송 밤으로의 초대 제작, 진행





새롭게 조명된 인도불교사

글.
안필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선임연구원





인도 불교의 역사 _

대상의 파악과 열여덟 가지 요소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울음, 호흡 등 이 질문에 대답은 한결같이 머릿속에 각인된 듯한 탄생 순간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태어나면서 울기부터 했을까요? 호흡부터 했을까요? 그건 모두 태어나고 짧지만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눈으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분간할 정도의 시력은 갖지 못하니 밝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귀로는 뱃속에서 들리던 엄마의 편안한 심장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코로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자극적인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또 굉장히 추웠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나를 둘러싼 세상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순간의 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스티븐타(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사진출처 : By Nomu420 (자작) | CC BY-SA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via Wikimedia Commons





인식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인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인식 대상, 인식 도구, 인식 주체입니다. 인식 대상은 우리가 파악하는 세상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식 도구는 그러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동원하는 것인데, 인간의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식주체는 ‘나’가 되겠지요. 인식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즉각 이루어지며, 그렇게 인식된 정보를 통해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각각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식 대상은 쉽게 말하자면 ‘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각각 다섯 가지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부르는데, 『반야심경』이나 각종 경전에서 흔히 등장하는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흰색에 결정이 거칠고,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같은 흰색이라도 결정이 곱고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각기 고유한 다섯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각각의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인식한 대상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식 도구는 앞서 말한 색깔 등을 알아채기 위해 필요한 감각기관을 뜻할 것입니다. 흔히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감각기관은 각각 일정한 범위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식 대상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면 인식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정보는 각각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인 눈, 귀, 코, 입, 피부 등에서 파악하여 그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우리 뇌에 까지 전달하고,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은 뇌는 그것이 소금이 아닌 설탕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주체는 쉽게 생각해보면 그러한 인식 대상을 내가 가진 인식 도구를 통해 파악하여 알아채는 바로 ‘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인식의 세 가지 요소, 인식 대상, 인식 도구, 인식 주체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식 대상은 앞서 살펴본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에 법^法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하여 여섯 가지로 파악합니다. 그것을 여섯 가지 경계, 즉 6경^境이라고 부릅니다. 인식 도구는 인식 대상 각각을 담당하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에 법^法을 대상으로 담당하는 도구로 의^意를 추가해 여섯 가지 도구, 즉 6근^根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주체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 인식 주체라고 생각되는 ‘나’를 다시 분석하여 여섯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인식 대상과 도구가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섯 가지로 나눈 인식 주체도 그 각각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식^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으로 여섯 가지 식, 즉 6식^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해보면 앞서 말한 법^法은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식 대상인 6경, 인식 도구인 6근, 인식 주체인 6식은 그대로 초기불교의 인식 이론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합니다. 결국 나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의 합인 세계는 인식 대상(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과 인식 도구 및 인식 주체(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6경, 6근, 6식의 열여덟 가지 요소로 파악하고 그것을 18계^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인식이 일어나려면 인식 대상과 인식 도구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접촉은 6경과 6근의 합이 되므로 그것을 12처^處라고 부릅니다. 초기불교는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단 이렇게 열여덟 가지 요소, 18계로 파악하고 출발합니다. 

안필섭 安必攝

대구 출생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부, 석·박사 졸업(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현. 한국요가학회 학술이사





통도사 합창단 단원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합창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전달하는 신행모임입니다.
장엄한 법석에서, 아름다운 야단법석에서
혹은 지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정중한 의식에서 소리공양을 올릴
귀한 인연을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도사 합창단에서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상 불교와 음악에 관심 있는 통도사 신도 및 일반불자(약간명)
- 모집기간 상시모집
- 활동 사중 정기 법회 및 행사시 음성공양, 대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 및 통도사 홍보
- 문의 지휘자 : 010-4558-8728, 포교국 : 055-384-8380



영축총림 통도사 청년회 범우 모집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불보종찰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신실한 신행활동을 이어갈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통도사 포교국 산하단체인 청년회원은 청년회 법회에 적극 참여, 청년불자로서의 신심을 증장시키게 되며 사중의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영축총림 청년회원이 되어 청년 범우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올곧은 신행활동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통도사 포교국 (055-384-8380)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 권선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 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도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불사에 뜻을 모으고 2014년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통도사가 전 대중의 뜻을 모아 착수하게 된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염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예금주 : 통도사)

병원불사 내역

일병동 동참	일억원
특실 동참	삼천만원
진료실 동참	천만원
일병상 동참	백만원
의료기기 동참	오십만원
휠체어 기증	삼십만원

※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동참금은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 불사

사부대중의 원력모아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분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참내역 원불 조성 소불 - 일백만원, 대불 - 일천만원

불사문의 기도접수처(화염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예금주 : 통도사)





불법의 나라,

자연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스리랑카

팔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 반도의 남동 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눈물 모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직업 특성상 불교 국가로의 성지순례가 잦은 편인데,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왜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 가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 대신 “불자라면 꼭 스리랑카를 가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곤 한다.

남한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에 천혜의 자연 환경과 훼손되지 않은 역사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이 스리랑카이다. 또한 인도의 남동쪽에 위치하여 일찍이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인구는 2천 2백만 여명으로 국민의 70%가 불자인 불교국가 스리랑카이다.





스리랑카에는 부처님 재세 당시와 관련 있는 많은 불교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특히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자극하여 그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불러 들이고 있는 점은,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불하실 당시, 그들이 되어준 보리수나무가 아누다라푸라 지역의 보리수 사원에 현존해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 때이다. 그의 아들 마헨드라와 딸 상카미타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후 마헨드라 장자가 먼저 이곳에 불법을 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상카미타가 인도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나무의 가지를 꺾어와 스리랑카 최초의 수도이자 불교 유적의 중심지인 아누다라푸라에 심은 것이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전법을 펼치던 순간을 함께 했던 이 보리수나무의 수령은 2,300년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구하고 불법의 진수를 갈망하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있어 아누다라푸라의 보리수사원은 빠뜨릴 수 없는 순례지인 것이다.

이 밖에도 스리랑카에는 불법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많은 불교 성지가 있다.

스리랑카 중부에는 ‘캔디’라는 지역이 있다. 18세기 까지 신할라 왕조의 수도였으며 오랜 역사와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어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캔디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 캔디에는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원 ‘불치사’가 있다.





불치사에 모셔진 치^ᄃ사리는 4세기 인도 남부 오리사 주 카랑가 왕자가 머리카락 속에 감춰 모셔왔다고 전해진다. 치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하루 중 오전 6시와 11시30분,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공양을 올리는 시간까지 세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밖에는 매년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약 2주간 부처님의 치사리를 코끼리 등에 모시고 시내를 행진하는 페라헤라 축제 때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기도 하다. 이 치사리는 스리랑카 수도를 옮길 때마다 함께 옮겨질 만큼 왕권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거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덕과 인연력이 거듭 쌓여야 만나질 인연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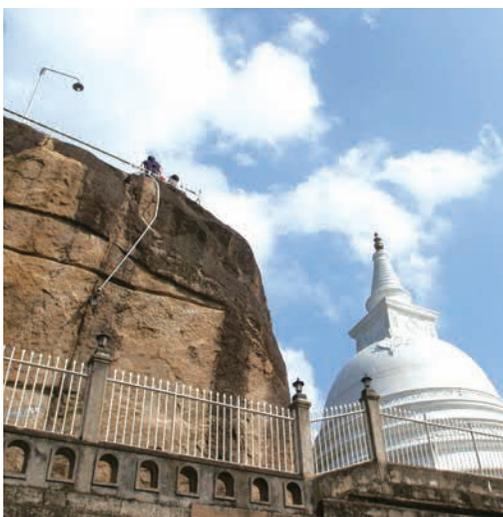
스리랑카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콜롬보에는 베일라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대표사원 '강가라마 사원'이 있다. 강가라마 사원은 1885년 스리랑카 불교재건운동을 주도했던 스리나야카 스님에 의해 세워졌다.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으나, 꺼져가는 스리랑카 불교의 불씨를 되살린 역사적인 곳으로 역대 스님들의 흉상, 박물관, 부도탑, 세계 각국의 불교 문화제가 소장된 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는데, 매년 2월 보름이면 '나밤 페라헤라'라는 축제 기간 동안 코끼리 등에 부처님 사리를 얹고 시가 행렬을 진행하는데 이 또한 장관이다.



이 밖에도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담불라 황금 사원, 알루비하라 사원, 이수루무니야 사원, 플룬나 루와의 거대 불상 등 많은 불교 유산이 장엄한 자연 경관과 스리랑카인들의 일상과 조화되어 오늘날도 스리랑카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다.

스리랑카를 순례하다 보면 거룩한 불법의 향기에 취하고 휴식을 주는 자연 경관에 마음을 빼앗기고,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스리랑카인들의 모습에 행복을 느끼곤 한다.

이들에게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늘 웃는 얼굴로 순례자를 맞이하는 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부처님이다. 🌸



이종민
대평여행사 이사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

삼종보리품(三種菩提品)

- 여래와 성문연각은 어떻게 다른가?

해설

“보리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문보리이고, 둘째는 연각보리이며 셋째는 제불보리입니다. 보리를 얻으면 부처라 하는데 어찌하여 성문과 벽지불은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성(法性)을 깨닫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면 성문과 연각도 법성을 깨달았는데 어찌하여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지(一切智)를 부처라고 한다면 성문·연각도 일체지인데 어찌 부처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일체(一切)는 곧 사제(四諦)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성을 깨닫는 입장에서 보면 성문과 연각도 법성을 깨달았으므로 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부처라고 하지 않는가? 사제를 깨달은 이를 일체지라 한다면 성문과 연각도 사제를 깨달았는데 왜 성문과 연각은 일체지인 부처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선생의 질문에 삼종보리로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삼종보리는 첫째, 들음을 따라서 얻는 것이고 둘째, 사유(思惟)를 따라 얻는 것이며 셋째, 닦음을 따라서 얻게 되는데, 성문은 들





음을 따라서 얻으므로 부처라고 하지 않으며 벽지불은 사유함을 따라 조금 깨달았으므로 벽지불이라 하며 여래는 스승이 없이 들음과 사유에 의지하지 않고 닦음을 따라서 일체를 깨달아 얻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성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데 법성은 다음과 같이 총상과 별상의 두 가지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

“법성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체상^{總相}이고 둘째는 개별상^{別相}이다. 성문은 총상만 알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지 않으며, 벽지불은 전체상은 알지만 들음을 따르지 않으므로 벽지불이라 하고 부처라고 하지 않는다. 여래 세존은 총상과 별상 등 일체를 깨달음에 있어서 들음과 사유를 의지하지 않고 스승 없이 홀로 닦음에 따라 얻었으므로 부처라고 한다. 선남자여! 여래 세존은 연기의 지혜^慧를 갖추고 있으나 성문·연각은 비록 사제^{四諦}를 알지만 연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지 않으며 여래 세존은 연기의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세존께서는 성문·연각·부처의 지혜를 토끼와 말과 향기를 내는 큰 코끼리로서 비유했는데 이들 세 종류의 짐승이 강물을 건널 때 토끼는 물에 떠서 강을 건너가고, 말은 강바닥에 닿기도 하고 닿지 않기도 한 상태에서 강을 건너며 코끼리는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것과 같은 것처럼 토끼는 성문에 비유하고 말은 연각에, 코끼리는 여래에 비유했습니다.

즉 성문과 연각은 비록 번뇌를 끊었으나 습기^{習氣}는 끊지 못했으며 여래는 습기의 뿌리까지 뽑아 없앴으므로 성문·연각과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심^{疑心}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셨는데 이승은 번뇌의 의심은 끊었으나 무기^{無記}의 의심은 끊지 못한 상태이지만 여래는 두 가지 망념을 다 끊었으므로 부처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문인은 다문을 싫어하고 연각은 사유를 싫어하지만 여래는 이러한 두 가지에 지치지나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비유로서 성문·연각·부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 많은 여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선남자여! 여래는 두 가지로 말하지 않고 그릇된 말을 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지혜에 걸림이 없고 설법하기를 좋아함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에 대한 지혜^{因慧}와 때에 대한 지혜^{時慧}와 상에 대한 지혜^{相慧}를 갖추어 덮어 감춤이 없고, 수호하는 것도 필요치 않으며 말에 허물이 없다. 큰 연민의 마음으로 괴로움과 번뇌를 뿌리 뽑아 구제하고 십력과 사무소의와 삼념^{三念}을 갖추어 몸과 마음의 두 힘을 모두 갖추었다.”



여래께서는 이렇듯 큰 힘을 갖고 계시는데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래께서 갖고 계시는 몸의 큰 힘을 예로 들면 수미산 정상에 있는 천상을 도리천이라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삼십삼천이라 합니다. 그 중앙에 선견성이 있는데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모두 십만 리이고 궁실은 백만 칸이며 그 곳에 사는 천인의 수는 일천 육십 육만 육천 육백 육십 육 명인데, 석제환인이 여름 석 달 동안 선견성에서 오십 유순 떨어져 있는 파리질다 숲으로 가서 피서를 하는데 이때 선견성 천인들이 모두 함께 이나발라향상이라는 코끼리를 타고 피서지로 가게 됩니다. 이 코끼리의 힘은 부처님 손가락 한 마디 힘의 일만 팔천 분의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래의 힘은 일체 중생의 힘을 합친 것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발심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여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마음 먹은 모든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을 구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부들은 생각이 있으나 복덕이 구족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도 여래께서 발심하고 수행하셨고 그 인연으로 성취한 모든 힘을 중생의 행복을 위해 쓰셨듯이 그렇게 성취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발원하고 수행한다면, 부처님처럼 십력과 사무소의 등을 구족하게 될 것입니다.



덕문스님

중봉성파스님을 은사로 통도사 득도. 월운강백스님에게 전강 철우·혜남을사스님에게 전계
사미계 수계산림 유나
현 단일계단 교수사·갈마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영축한경칼럼

글. 사진

이병인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사찰림 寺刹林의

보존과

활용

봄이 깊어가니 멀리서 바라보이는 신록들이 더욱 푸르러집니다. 한국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초파일을 맞아 21세기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2500여 년 동안 불교는 세계의 대표종교로서 이어져 왔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지도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로서 큰 역할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심히 깨달음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이루신 불국정도(佛國淨土)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불교 전래 이후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맥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아있는 국가적 문화유산들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찰림(寺刹林)입니다. 조계종단소유의 사찰임야가 2억평 이상이 되고, 통도사 등 웬만한 사찰은 수백만평 이상의 사찰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찰림의 중요성은 이미 국가적으로도 인정되어 많은 지역들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사적 및 명승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왜 사찰들이 사찰림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라에서 하사한 것들도 있고, 일부는 스님들의 삼보정재라는 의식하에 땅 한 평이라도 사서 모으고 지켜왔습니다. 사찰은 그 입지조건에 따라 평지사찰(平地寺刹)과 산지사찰(山地寺刹)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 통도사 일주문



| 통도사 전경도

불교 전래 초기인 삼국시대에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도심내에 있는 평지사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 이후 선종禪宗의 활성화와 풍수도참사상의 영향으로 '영축산 통도사靈鷲山通度寺'라는 이름처럼 산과 절이 하나가 되는 '산사山寺'로 존재하게 됩니다. 영축산 통도사도 통도사 큰 절과 산내의 부속암자 19개와 영축산 정상부터 이어지는 능선으로 보이는 6백만 평의 사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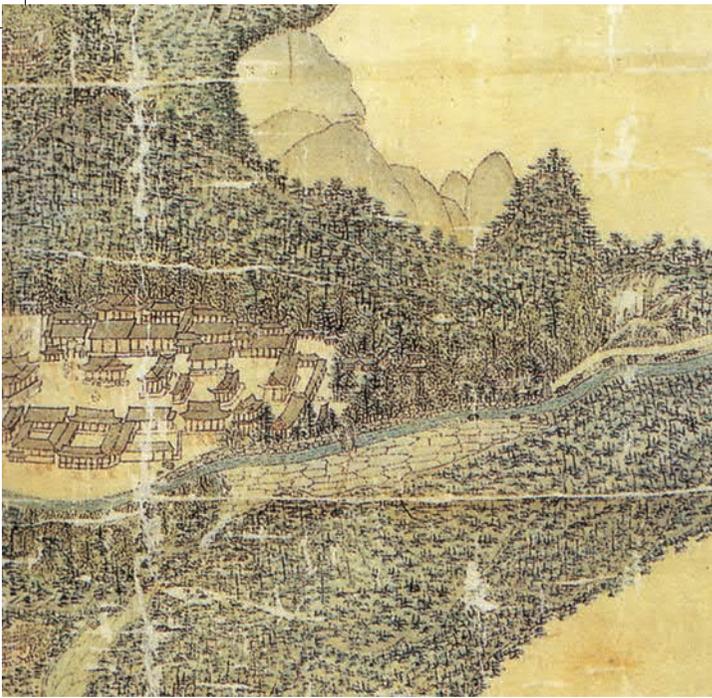
예전에 중국의 저명한 회사의 임원이 와서 사찰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사찰에 대해 어떠냐고 물었더니 작고 아담하다고 해서 그럼 '통도사에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통도사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매표소가 있는 산문부터 큰 절, 그리고 암자와 눈에 보이는 영축산 능선들을 가리키며 이곳이 다 통도사이고, 한국사찰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숲들을 하나로 보는 산사山寺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한국사찰은 참 아름답고 자연적이며, 크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날 한국사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서 이제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찰

림 등의 환경도 중요함을 알아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출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 기원정사, 녹야원 등 항시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곳은 숲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를 숲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어도 천 수백 년간 한국사찰은 사찰주위의 숲을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관리해왔습니다. 난방용 땀값으로부터 사찰건물을 위한 건축자재로부터 자생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찰림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적어도 천 수백년동안 사찰은 사찰림을 지켜왔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많은 경우 사찰림은 무방비상태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기에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할 주체도, 예산도 인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찰내부에서도 사찰림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전 사찰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통도사 계곡

21세기 사찰림(寺刹林)은 분명 삼세(三世)의 소중한 자연유산(自然遺産)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확인하고 알리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알리는 작업을 통해 이 시대 사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많은 사찰림들에 대해서는 일부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되, 상대적으로 생태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찰림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찰림에서 지속적인 산채와 바이오매스 등의 목재이용과 수종개선 등 산림경영에 대해서도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21세기 사찰림은 불교적 특성을 다양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 본래의 정신·휴양가치를 바탕으로 사찰림을 이용하여 자연복지(自然福祉)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전부터 국내외에서는 산림치유(山林治癒)라 하여 숲이 가지고 있는 치유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 등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불교는 큰 자산들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리는 정신문화유산과 사찰림이라는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와 문화와 자연을 함께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기에 21세기 한국불교는 무엇보다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등 40여 환경문화관련 자문



진주 남강유등축제 통도사와 만나다

2000년 제1회로 개최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한 이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면서 전국
1,500여개의 축제들 중 단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 왔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
되면서 세계의 유수한 축제와 경쟁하는 국가대표축제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주 ‘유등流燈’ 세계에 빛나다

2013년부터 4개국 초청받아
한국전통예술문화의 가교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수축제에 수여되는 피너클 어워드 시상식에서 금상 1개와 은상 1개를 수상하며 세계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0년 진주시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의 축제 일몰제 정책이 발표되며 주최측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축제 운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2011년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 3개와 동상 1개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축제 브랜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그해 겨울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시가 자랑하는 세계 3대 겨울축제인 ‘윈터루드’ 축제의 초청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축제 역사상 최초로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2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과의 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마틴’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2월 진주남강유등축제 캐나다 진출’을 확정지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시 중심가에 위치한 컨퍼더레이션 공원에 1,300여기의 소망등 터널과 대형등 6기, 전통등 20여기가 설치되면서 현지 관광객들은 물론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를 비롯하여 로제르스 TV, CHIN라디오 등 현지 언론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창희 진주시장을 위시한 한국 측 대표단의 방문은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미국 LA한인축제에 614개의 등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의 활로를 개척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의 초청을 받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3개월간 유등이 전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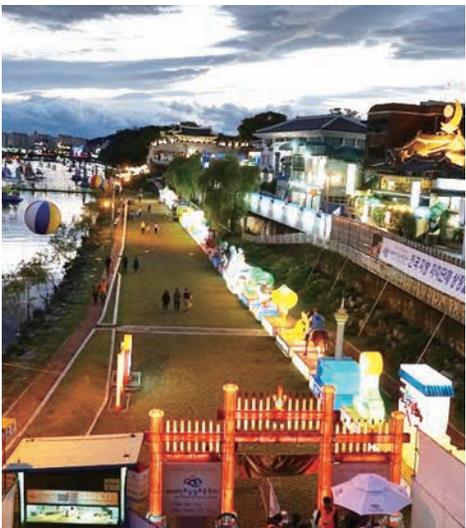
이런 진주유등축제는 통도사와 손을 잡고 유등 대어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오는 부처님 오신날과 10월, 개산대제에는 세계적 명성의 진주유등을 통도사 경내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3월에는 미국 남부 히달고시의 보더페스트에 진출함과 동시에 국내 유등 작가가 직접 히달고시의 학교에서 창작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진주지역 고유의 문화인 유등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2016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6일간 진주시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초혼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문의: 진주문화예술재단 (055)755-9111





중립학교, 그 캠퍼스를 찾아서

글. 사진
김정은 등불 편집실



나주 덕룡산 미륵사 종립 벽상학원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나주 덕룡산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힘썼던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사찰 주지로 부임하는 것과 동시에 '미륵사 장학회'를 설립, 20여년 가까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스님의 청소년 포교는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2015년 11월, 사립학교였던 나주 세지중학교를 인수하며 교육현장에서 포교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 위치한 세지중학교(교장 김맹렬)의 역사는 1953년 이춘호 선생의 세지공민고등학교 설립을 원년으로 한다. 1969년 학교법인 장동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세지중학교로 개교했다. 2005년 원일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학교법인의 명칭이 벽상학원으로 개명됐으며 일반 사립학교에서 종립학교로 전환,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세지중학교는 올해로 45회, 총 6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면 소재지에 위치한 작은 학교임에도 지역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아 인근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지중학교는 2009년 저출산과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농어촌전원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며 2011년부터는 전입 신입생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성과와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2013년 11월 교육부가 지정하는 전국 20개 농어촌 집중 육성 우수중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연 최고 5억씩 3년간 15억의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 명문학교로 성장해 온 세지중학교의 변화와 강점으로는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특성화 교육을 들 수 있다.

세지면은 문화 불모지이다. 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환경은 늘 교육환경의 약점이었다. 세지중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생 1인 1악기 연주'를 목표로 토요일현악반과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 소외지에서 심미적 체험을 하고 나아가 국악고 진학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연극·미술관·박물관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스키·승마·빙상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함양하고 소질개발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지의 학생들이 세지면의 다양한 문화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불 밝히는 세지학당'도 운영하고 있다. 6시부터 8시까지 정규교사와 외부강사의 교수학습 활동 협조를 통해 개인별·수준별 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비롯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세지중학교 김명열 교장





또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 잔디 구장 및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편백나무 교실과 다목적 체육관인 벽상관도 신축했다. 전 교실에서 전자 칠판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최첨단 스마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도시학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벽상학원 산하 종립학교로 탈바꿈하며 시작됐다. ‘불교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포교’,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불교가 산다’는 원일 스님의 포교 원력이 세지중학교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색깔도 잃지 않았다. 2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는 불교동아리 탐불회는 매월 1시간씩 학교와 미륵사에서 불교예절 교육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법회도 봉행하고 있으며 농촌 일손

돕기, 자선구호활동, 위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2012년 취임하여 4년간 세지중학교 구성원들을 이끌고 있는 김맹렬 교장은 ‘모두가 기쁘게 생활하는 신명나는 학교가 목표’라며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 생각과 생활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세지중학교를 둘러싼 청정한 환경, 체계적인 교육과정, 스마트한 교육환경은 이제 지역주민은 물론 나주시민들의 이목을 끌며, 소외된 시골 작은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성장했다. 이제 세지중학교의 제2 목표는 정해졌다. 우수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 그것이다. 🍄

(전남 세지중학교: 061-331-5506)





그림으로 본 부처님

일러스트.
정기란 불교일러스트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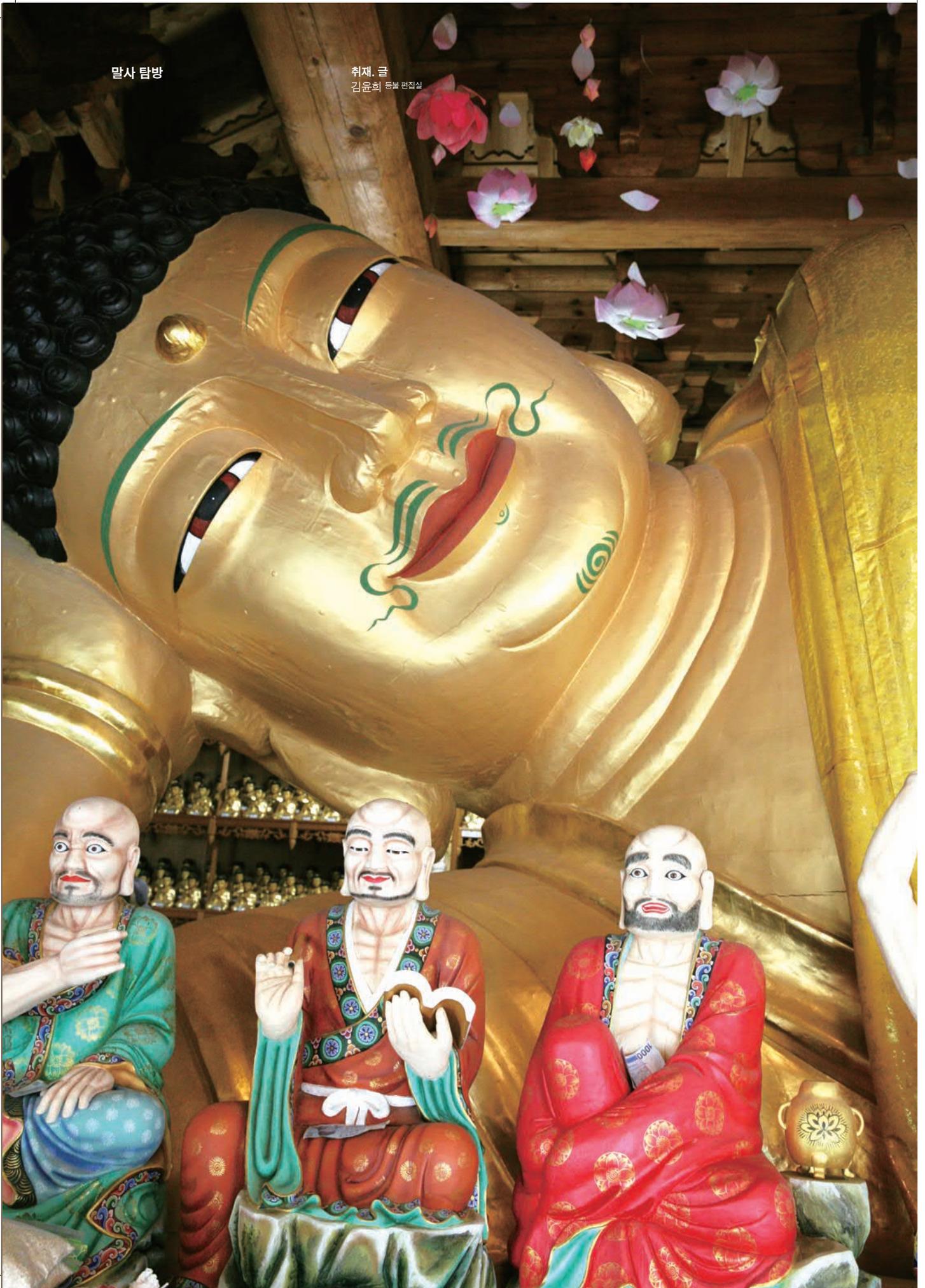
어람관미술





말사 탐방

취재.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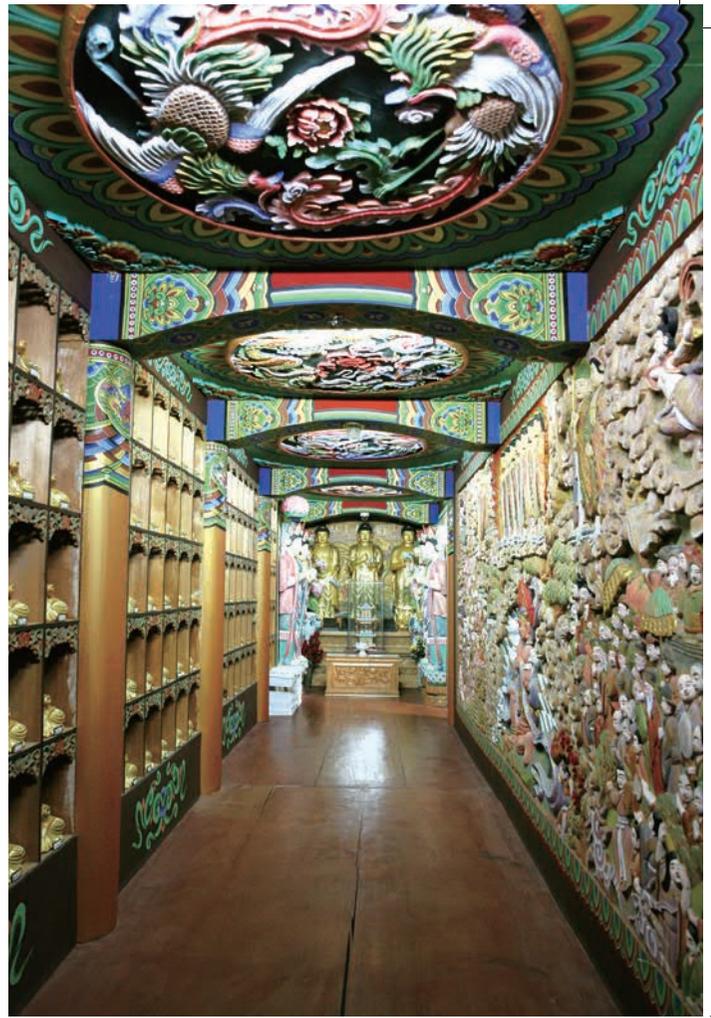


세계 최대

생산불교 실현 위한 와불 부처님의 도량

부산 기장 금산사를 찾아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도량을 빠져나오는 객의 입에서 알지 못하는 원이 흘러나온다.
 그 이전, 간절함을 보았고 열정을 보았던 게 자명하다.
 한 곳에서 19년의 세월동안 묵묵히 전법의 길을 걸어온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해 있는 금산사의 주지 범철스님이다.



금산사는 유독 절이 많은 부산 기장에 있다. 해운
 대구 송정을 지나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국도
 변에는 이름만 거명해도 알 만한 사찰들이 줄지
 어 늘어서 있는 지역이다. 바로 그 '절골'같은 동
 네에 20여 년 전, 첫발을 내딛은 범철스님은 2천
 여 평의 규모라면 뭐든지 가능할 거라는 판단으
 로 가람을 짓고 기도를 했으며 더불어 문화포교
 의 첫걸음을 보무도 당당히 내디뎠던 인물이었
 다. 물론 한창 일을 할 만한 세수였으니 의욕은 남
 보다 서너 배쯤 앞섰고, 문화마인드가 전무했던
 불교계에 스님의 문화적인 감각은 주효했다.





부산불교연합회의 소임을 맡으며 광안리불교축제를 첫 회부터 3회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했던 인물도 범철스님이었으며 그로 인해 불교가 문화와 접목되어 포교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식적인 변화도 기실은 범철스님의 앞선 문화적 안목에서 기인했다는 전언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일이 불교 남성중창단의 창립이었다.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된 불교남성중창단이 단위사찰인 금산사에서 출범을 했으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당연했고, 더욱이 와불 부처님을 법당에 모신 남다른 발상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국의 불자들을 금산사로, 금산사로 모여들게 하는 범철스님만의 특화된 포교마인드 덕택이었다.

금산사는 사실, 유명세를 탄 사찰치고는 크게 전각을 자랑할 만한 도량은 아니다. 전각으로는 대웅전과 삼성각, 지장전이 전부이므로 대가람을 기대하고 오는 이들에게는 자칫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주지 범철스님과 마주 앉게 되면 현재 구상중인 불사계획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다. 다실에 세워진 10여개의 조감도만으로도 불사의 청사진은 가늠이 되는데 거기에 스님의 설명이 덧붙여지니 그야말로 대만불교의 현주소를 우리나라에서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30만평의 대지에 10여 년의 대작불사로 기획 중인 금산사의 팔만대장경 석경대전은 생산불교를 지향하며 한국 문화관광사찰의 대명사가 될 최고의 걸작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금산사를 오늘날의 순례 사찰로 명성을 높인 데는 대웅전에 모셔진 대형 와불 부처님이다.

천안 각원사의 와불과 견줄 만한 부처님이 영남권에 조성되었으니 불자들의 발길은 연일 이어졌고 그러기까지는 그저 앉아서, 하루아침에 입소문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지 범철스님과 금산사의 신도들이 일심으로 홍보를 하고 발로 댄 결과였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순례사찰로서의 역할을 홍보한 결과 얻어진 쾌거였다. 가히 ‘하는 만큼 되더라’는 구절이 떠올러지는 순간이다.





도량 내 평상 위에서는 연등이 산을 이루고 있고, 사찰의 초입부터는 준비하게 걸린 연등이 부처님 오신 날을 예고하는 시간, 기자 또한 대웅전의 와불 부처님의 몸속을 참배하는 시간이다. 여유 가득한 자태로 누워계신 부처님 앞으로는 18나한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나투고 있었으며 부처님 뒷쪽으로는 천불이 조성되어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또한 법당 앞으로는 고증과 자료에 입각한 65가지의 성물이 마련돼 있었는데 이는 2004년 부처님 조성 당시, 간소하게 성물을 모신 것이 못내 송구스러움으로 자리하여 내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하여 복장불사를 여법히 하기 위한 성물들이라는 설명이다.

다섯 가지의 거울, 5가지의 보병, 5가지의 곡물, 5가지의 향, 5가지의 약, 5가지의 보배, 그리고 경전 등 불자들의 이해를 돕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물들은 아마타불 관세음보살 복장 불사의 그날 성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될 터이다.

범철스님, 스님은 전천후이며 만능이다. 몸소 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기자가 찾은 시간에도 지장전에 걸린 연등 불사를 위한 손놀림으로 사중의 처사를 자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이셨나요?”

“금산사를 조성하기 전, 복지불사를 꿈꿨습니다. 불교가 지닌 자리이타의 정신을 시대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대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그것이 강원을 졸업하고 난 뒤인 1985년의 일이었고, 1990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국립결핵요양원과 나환자촌에서 10여 년간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을 수행자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그날들이었습니다.” 라며 당시의 순간들을 가감 없이 들려주는 스님이다.

그러니 당시의 원력은 이제 금산사 문화원 건립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세우는 일과 팔만대장경 석경대전 불사 회향으로 이 땅에 메머드급 생산불교의 대가람을 조성한다는 것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그대로 살아라.” 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범철스님이다.

더 나은 미래, 현재 보다 발전된 불교, 지성의 불교인으로 괄목상대의 그날을 꿈꾸는 스님에게 이제 금산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로의 비상을 예고하고 있다. 🌟

(부산 기장 금산사: 051-727-1216)





산하기관_어린이집 소식

글.
구경미 어린이집 교사



출발 전 안전 벨트는 필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함도 참을 수 있는 멋진 통도
 사 친구들이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운 노래를 부르며 가는 길도 즐겁게.
 ‘딸기를 어떻게 따지?’, ‘딸기가 많이 있을까?’ 기대에 가득
 찬 표정만큼 기분도 들떠 있는 우리아이들.
 본격적인 딸기 따기 체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딸기 밭도
 작과 함께 밀려드는 달콤한 딸기향이 우리아이들의 코를 자
 극시켜 주었지요.
 딸기 농장으로 들어가기 전 하얀 딸기 꽃을 탐색해보고 하얀
 꽃이 지고 나면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가 자란다는 말을 이해
 라도 하는 듯 “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꽃향기를 맡으며



친구들과 함께
딸기밭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식물들을 볼 때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인지 선뜻 만지지를 못하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딸기를 따서 맛을 보여주고 “맛있어?” 라는 질문을 하자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이며 “최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라 딸기 따기가 잘 되지 않자 줄기를 들고 줄기 끝에 달린 딸기를 그냥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귀여운 아이들이죠.

“쌤쌤 이봐봐요” 하며 큰 딸기를 찾았다며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들 나름대로 딸기 따는 방법을 터득하고는 자유롭게 딸기를 따서 먹어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소풍의 클라이막스는 당연 도시락이죠. 가정에서 정성스레 싸온 도시락과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딸기 따기 체험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았습니다.

딸기를 많이 먹은 아이들.

딸기응가를 썼다는 풍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양산 원동 딸기 최고...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구술.
원상스님

정리.
허미옥

사진.
최배문





취나물 잡곡

주먹밥

저마다 날 좀 봐요. 향기를 뽐뽐... 뽐어내는 봄나물들.
그중에서도 씹사름한 맛이 입맛을 돋궤 주는데는 취나물이 일품이죠
봄에 먹는 취나물은 맛과 향이 가장 좋답니다.
봄내음 향긋한 취나물 음식을 함께 해 보아요.
봄이라 더욱 싱싱하고 부드러운 취나물!



취나물은 산에서 자생하는 산채로 맛과 향이 뛰어나 널리 사랑받는 봄나물이에요. 봄에 뜯어 씹을 싸먹으면 독특한 향취가 미각을 자극하지요.

취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체내에 쌓여 있는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있지요. 취나물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우리 몸에 유해한 염분(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또한 비타민A도 풍부해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요.

겨울에 먹는 말린 취나물도 쫄깃하니 맛있지만,

이제 봄나물 지천인 봄이니 푸릇한 생취나물잡곡 주먹밥으로 봄나물 만들기를 해볼까요?

음식은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취해 인간이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에 늘 음식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불교의 사찰 음식은 살생을 금하는 한국 불교의 자양분으로 자라난 성스러운 자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생명 존중을 생각하고 자연의 고마움을 나누는 사찰 음식은 착한 음식, 생각이 깊은 음식입니다. 🌱

취나물 잡곡주먹밥 만들기

재료 :
취나물30g, 불린쌀 1/2cup, 검정참쌀 1t, 기장쌀 1t
볶은아마씨 1t, 참기름 2t, 소금, 볶은 검정깨1t
다시마 1장, 집간장

만드는 법 :

1. 먼저 불린 쌀과 잡곡을 넣고 다시마 1장과 참기름 1t, 소금 조금을 넣고 밥을 짓는다.
2. 취나물은 잘 다듬어서 냄비에 물을 끓인 후 소금을 넣고 데쳐 낸 후 찬물에 헹구어 꼭 짰 후 집간장, 참기름을 넣고 잘 무쳐준 후 잘게 썰어 놓는다.
3. 밥을 지은 후 검정깨와 아마씨, 취나물을 넣고 잘 섞어 준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주먹밥을 만들어 준다.





건강칼럼

글.
윤태환 한약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수석부회장

몸의 열을 식혀주는

금은화金銀花

올해 오월은 운기학運氣學상으로 화火的의 기운소양상화少陽相火이 겹쳐 있어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 같기도 하다. 또 오월이 되면 통도사 주변 울타리에 금은화(일명 인동초)가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금은화는 오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여름 내 피고 지고하면서, 필 때는 흰색이지만, 질 때는 노란색이라서 흰색 과 노란색 꽃이 한냉쿨에 함께 피어 있어 이름조차 금은화金銀花라 붙여진 꽃이다.





차만들기

차 한 잔에 금은화 5송이 정도 비율로 하여 뜨거운 물로 일본 정도 우려내어 마신다. 양을 많이 하거나 너무 오래 우려내면 쓴 맛이 강하여 진다. 맛을 보아 두세 번 우려 마셔도 된다.

금은화는 한방에서 열을 다스리는 약재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폐경_{肺經}, 비경_{脾經}, 심경_{心經}에 작용하여 열을 내리고 해독하면서 지혈 하는 효능이 있어 열독을 치료하는 요약_{要藥}으로 알려져 있으며, 붓질 목감기, 호흡기 계통 감염 치료, 열독_{熱毒}에 의한 피부 질환, 인후_{咽喉}부 질환, 옹종창양_{癰腫瘡瘍}, 이질 설사, 열감기 초기, 각종 염증 치료에 쓰인다.

약리_{藥理}실험 결과에 의하면 억균_{抑菌} 작용, 소염 작용, 약한 진통 작용, 면역 부활 작용, 항암 작용, 이뇨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밝혀져 있다.

금은화를 채취할 때는 맑은 날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는 꽃봉오리를 채취하여, 깨끗한 자리에 널어, 그늘에서 말린다. 이때 한 번씩 고르게 저어 주면서 꽃봉오리가 검게 변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강한 햇볕에 쬐이지 말아야 한다. 완전하게 마르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두고 사용한다. 🌿





통도사 www.tongdosa.or.kr

적멸도량회 산내암자 순례 (4월 4일)

통도사를 찾는 불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안내 봉사를 도맡고 있는 신행단체 '적멸도량회'가 4월 4일 산내 암자 순례에 나섰습니다. 백운암을 시작으로 극락암, 비로암, 백련암, 옥련암을 거쳐 보타암까지, 영축산을 장엄하는 암자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통도사 산하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연수 (4월 16일)

4월 16일 설법전에서는 천진불을 길러내는 막중한 소임자들인 통도사 유치원, 통도사 어린이집을 비롯한 총 25개 유아교육기관에서 102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법문을 해주셨으며, 교시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과 108배를 통해 하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4개 기관에 우수상이, 24명의 교사에게 우수교사상이 시상되었습니다.



산내암자 감원회의 (4월 20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여법한 봉축일을 보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4월 20일 탐광실에서는 극락암을 비롯하여 17개 산내암자 감원 스님들이 봉축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낙화놀이, 솟대 설치, 진주남강유등 설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5교구 통도사 불사자문위원회의 (4월 21일)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불사자문위원장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도문 스님, 사업국장 석운 스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불사자문위원으로 박은경 동아대 교수, 신용철 양산박물관장이 임명되었으며, 통도사 세무자문 위원으로 이선익 세무회계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양산시청공무원 불자회 (4월 22일)

양산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불자 여러분들이 통도사를 찾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공무를 맡아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불자로서의 도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통도사 말사 주지임명

홍콩 흥법원 지우스님, 밀양 용궁사 정무스님

통도사 본사 보직 이동

본사 소임 보직 변경이 실시되었습니다. 재무과장이었던 무문 스님이 재무국장으로, 호법국장이었던 동수 스님이 원주스님으로, 자임 스님은 사서를 겸하는 총무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통도사 말사 소식

밀양 단장면에 위치한 통도사 말사 보문사가 관세음보살·지장보살·관음보살탱화를 새로 모시고 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보문사 도량에서 올리는 기도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내빈 방문

법조계 재가불자단체 서초반야회 내방

박천수 양산경찰서장 내방

삼성 SDI 울산사업장 부사업장 내방

경남지방경찰청 이준섭 제2부장 내방

MBC 안광환 사장과 사장단 60여명 내방





박물관 www.tongdomuseum.or.kr

기도법회안내 : 인등 / 연등기도 : 5월 20일(금요일), 오후 5시 성보박물관 1층 중앙괘불전

5월 문화답사 안내

5월 문화답사는 박물관 사정으로 쉽니다. 넓은 양해 바랍니다.

제17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 기념법회 성료

지난 4월 15일 '제17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 을 맞이하여 성보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기념법회를 가졌습니다. 10년 근속 봉사자(21명), 우수봉사자(5개조), 우수봉사자(24명)를 선별하여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하였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문화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비원 www.jabiwon.org

통도사자비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200여 분의 어르신들과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80여명의 종사원이 최상의 서비스로 극진히 보살펴 드리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쪽쪽 어르신들의 신나는 '건강체조'

4월 5일 양로원에서는 평소 활동량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세라밴드 건강체조를 하였습니다. 세라밴드는 보행능력개선, 몸의 균형능력, 심폐기능이 증진되는 효과로 근력이 감소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력강화, 관절염에 좋은 운동으로 모두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봄 '나들이'

4월 6일 요양원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통도사 C.C 산책로를 따라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함께 벚꽃 내음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소방교육'

4월 7일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 어르신들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 등 대처방법과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목욕, 청소, 이·미용, 보건 의료지원, 프로그램 진행, 각종행사지원, 말벗 등
- 물품후원 : 생필품, 의약품, 가전제품, 의복, 쌀, 간식, 기저귀 등
- 후원계좌안내(cms, 지로, 통장입금)

농협 : 813037-51-054104 국민은행 : 666-01-0040-891

- 전화 : 055-385-2800(직통), 383-3999 / 팩스 : 055-381-2242
- 주소 : 우)626-86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행수기

글.
이영주 박록관

마음 비운 하루

어스름 어둠이 떠나지 않은 산문 앞이 왠지 낯설다. 통도사 종무원들이 성지순례 가는 날이다. 덩치 큰 버스가 움직이더니 미끄러지듯 산문을 출발했다.

차 안에서는 정성스럽게 마련된 간식이 나왔다. 출출하던 참에 우유 한 통을 내리 마셨다. 뺏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웬일일까! 어느새 차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쪽 뺏은 고속도로 차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차에서 내려 묻고 싶다.

확 트인 고속도로를 뒤로 하고 산길 들길 꼬불꼬불 차는 계속 느림보 거북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시원한 바다, 웅기종기 크고 작은 보금자리. 그 옆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 등 산업 발달에 기여한 무수한 공장들 모두가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지나고 또 지나니 차는 향일암 주차장에 멈추어 섰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서둘러 차에서 내려 향일암을 향해 올랐다. 가는 길 양 옆 좌판에 놓인 먹거리들이 나를 유혹하니 눈요기가 즐거웠다. 가파른 언덕길 꼭 올라가야하나...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쁜 숨을 바로하고 법당에 삼배하니 저절로 시심^{詩心}이 일어난다.





향 피우고 소원비니
일은 모두 다 성취하여
암울한 지난 일 단번에 사라지길!

눈에 들어오는 풍광 그대로가 한 폭의 그림이다. 시름을 덜고, 내려 놓을 것
모조리 내려 놓아 가벼워진 모습으로 이 도량을 내려가야 할 것이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 보다 편안했다. 늦은 점심공양 먹거리를 찾아 해매
다 보니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할 고기들 몸매자랑에 두 눈 부릅
뜨고 고무대야에서 우리를 맞이한다. 어쩐지 마음이 쩡하다.

가득 배를 채운 우리는 케이블카를 탔다. 무섭지 않을까. 막상 타 보니 구름
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기분이다. 마치 푸른 양탄자를 깔아놓은 바다에 한가
로이 배 한척이 지나가는 한 폭 그림을 연상하다보니 내릴 시간이다.

동백섬을 거쳐 엑스포 주차장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
아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창가에 비스듬히 앉아 하루를 정리 하다 보니 외로
이 선 가로등은 반짝 눈을 뜨고 희미한 불빛 사이로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
었다. 어느덧 버스가 통도사에 다다랐다.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보살펴주신 방장스님, 주지스님, 각 국장스
님의 사중 모든 스님! 수고한 종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인다. 🙏





월간 등불,
아름다운 법보시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자랑입니다.

월간 등불을 법보시하는 일은
법공양의 실천입니다.

월간 등불을 후원하는 마음은
불법을 흥포하는 문서포교의 불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월간 '등불' 이 있습니다.

이달의 법보시 동참자

주지스님, 도문스님, 선본스님, 무위스님(양산포교당)
정진스님, 성법스님, 서일스님, 진웅스님, 광우스님(관룡사)
선다회 학생회, 선다회 사범회, 적멸도랑회, 통도사 포교사
통도사 수련동문회, 염불공덕회, 사리탑봉사반, 바라밀다봉사회
임성문, 최서윤(을미생), 내원사, 흥성표, 불교대학(목요경전반)
최현수, 김기분, 최동호, 최미서, 최보미

매월 2만원 법보시 동참 바랍니다.(동참자 성함 게재해 드립니다)

월간 등불

알려드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월간 서보 「등불」이 창간 10년을 맞아 월간 「등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1976년 통도사 공판의 창간 50주년을 기념 차림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간 「등불」의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실은 통도사 법보시팀에 있습니다.
「등불」이 지니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등불」의 제호는 영축총림 초대 향장을 지낸 원효대종사님의 원효대종사님에 대한
세로 「등불」의 표지 역시 그에 대한 면담을 알려드립니다.

통도사 보리국 월간 등불 편집실 향장

‘법공양 마당’

장소 : 불이문, 산중다원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등불
이 ‘법공양 마당’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마련된 등불 법공양 마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폭넓게 읽히는 월간 사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 편집실에서는 10년 이상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의 1년 정기 구독료를 5천원 상향 조정하여 2만원
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송료와 제작비 등 많은 부분 물가 인상이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오니,
양해 비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들과 불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간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선원에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통도사 보살선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나은 정진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대 상	70세이하, 70세이상은 선원장스님과 면담 후 결정
시 기	▶ 동안거 10월 15일(음) ~ 익년 1월 15일
	▶ 봄산철 1월 16일(음) ~ 4월 14일(음)
	▶ 하안거 4월 15일(음) ~ 7월 15일(음)
	▶ 가을산철 7월 16일(음) ~ 10월 14일(음)
	※산철은 자유정진
정진시간	하루 7시간
방 부 비	개인 1실 - 120만원(1인 1실 규정) 출 퇴 근 - 50만원
연 락 처	055-381-0977 보살선원





편집 후기

걸어온 당신의 길 알고 계십니까?
봄빛 곱게 치장한 이 길, 최상의 길임을
알고 계신지요.

봄다가 오셨습니다.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존귀함 드러내며
가없는 모습으로 인류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행하고 계십니까?
봄다께서 주신 가르침, 그대로 행하고
계신지요.
돌아 볼 일입니다.
인편이 같은 모습이라야 합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야 합니다.

진정,
자비로우십니까?
걸도, 속도 균일한 평등심으로
부처의 행 그대로 옮기고 계신지요.
속이지 못하는 것,
정녕 자신입니다.
내면에 물으십시오.
부끄럽지 않음인가?
소홀함이 없음인가?
최선을 다했는가?

끝으로, 요역의 삶이었나를
매 순간 채점하셔야 합니다.
그러써 부처님 오심을 찬탄할 자격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원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평생 등불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안내 (예금주: 통도사)

국민은행 666-01-0060-891
농 협 813015-51-082016
신한은행 140-000-925706

우편접수

505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등불 편집실 앞 / 문의 : ☎ 055) 384-8380

- ※ 주소이전, 송금 온라인 등으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에는 걸봉투에 표기된
성명으로 해주십시오.
- ※ 우편물 배달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혹, 이사를 가시면 연락을 주시고 성금과 구독료 납부에 이상이 있으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발행하는 '등불' 보내기에 동참합니다.
- ※ 은행 입금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혹,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은 등불가족 여러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편집실 이야기

월간 등불은 34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영축총림 통도사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여러 독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행되는
불지종가를 대변하는 소식지입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맑고 아름다운 등불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바랍니다.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1년 연장)

최영옥, 박성근, 김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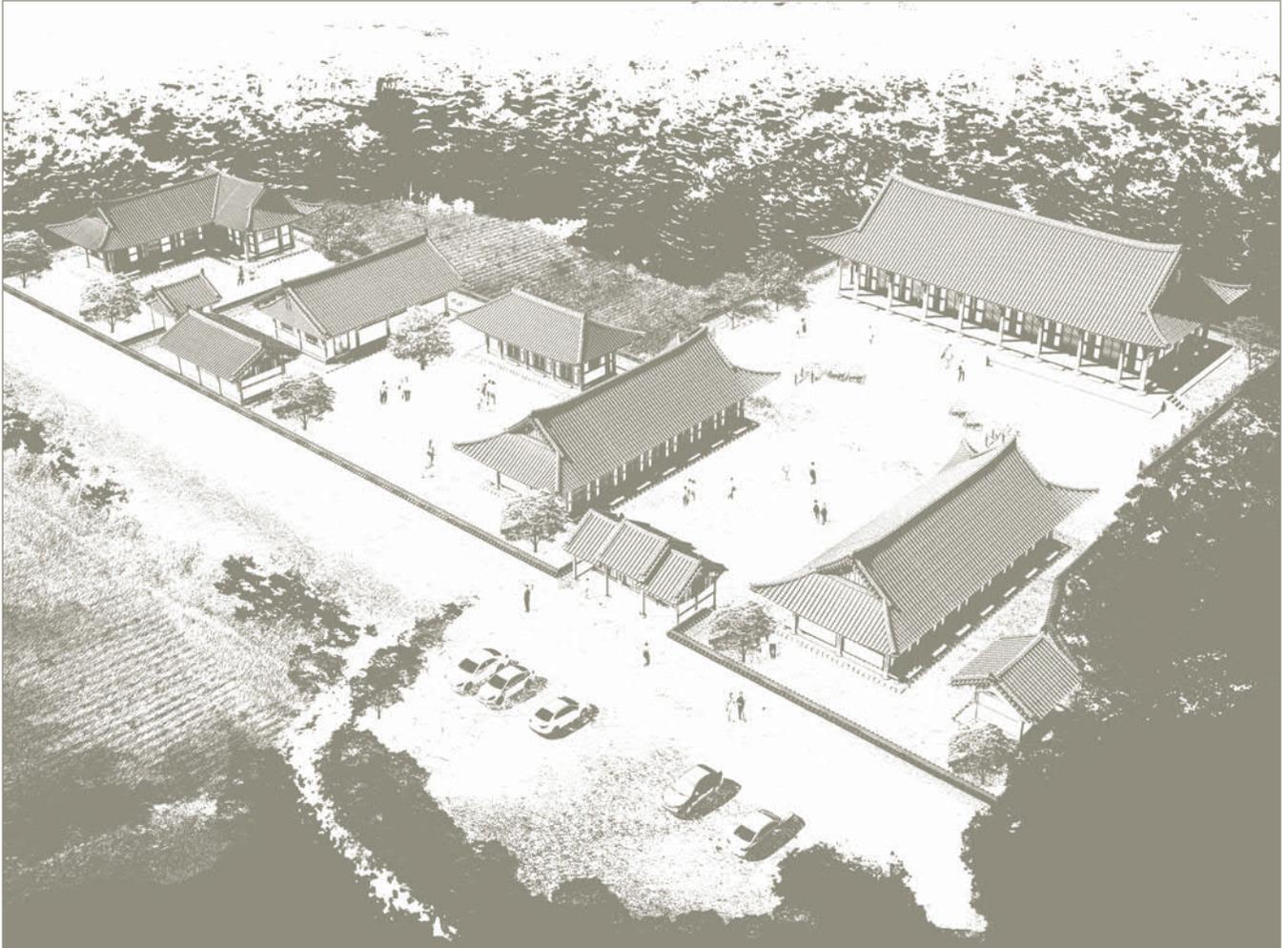
새로운 등불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1년 신규)

이애정, 정지훈, 임길선, 이재수, 유미아, 전인숙

함께 하는 마음이 등불을 살찌웁니다(평생 회원)

윤미정





영 축 총 립 통 도 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영축총림의 보광선원은 통도사의 대표적 수행처입니다

그러나 수 백년을 지켜온 보광전 당우는 낡고 퇴락하였고 보궁기도와 법회로 인하여 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방장 원명지증대중사의 원력과 사중의 뜻을 모아 정진에 진력할 수 있는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뵈는 선불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총림의 당간을 높이 세우고 선풍을 일으키는 뜻깊은 일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우체국 611434-01-002199(예금주 : 통도사)



